

편집 후기



어느 해였는지 잊었지만 여름휴가에 변산반도를 돌아 온 일이 있었다.

내소사에서 월명암쪽으로 넘어가던 길에 잘생긴 폭포를 만났다. 가물었던 여름이라 물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더위에 지친 끝에 만난 물이라 앞뒤 생각없이 반바지차림인 채 그냥 뛰어들었다. 폭포 떨어지는 곳이 예그렇듯 웅덩이는 사뭇 깊었는데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그만 깊은 곳을 헛딛고 빠져버렸다. 장난인 줄 알고 구경하던 일행이 다가와 건져주었을때 초죽음(?) 상태-

원고지에 몇자 적어보는 일은 귀찮을지언정 겁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업무로서 맡고보니 이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항상 헛딛는듯 싶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만 같은 기분으로 밤이건 낮이건 초조하기만 했다.

배수의 진을 치면 군사는 죽기살기로 나선다고 했다. 물을 등진 군사처럼 단단한 각오로 더 알뜰한 「방재와 보험」 제작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글을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根>

“이틀만 기다리라고요?”

“여기 사정도 좀 봐주세요요.”

“약속날짜가 이틀이나 지났는데요.”

옆자리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그치기도하면서 애원하는듯한 톤인데 어느새 날짜가 술술 빠져나간다.

원고청탁에서 마감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 박박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7월은 뜻뜻한 사과처럼 조금씩 조금씩 얼굴을 내어민다. 지나간 고생은 다시 꿈결같이 스러지고 있으나 이번 호는 편집자의 새로운 진용으로 편집, 교정, 원고청탁등에서 다양한 변모를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표지 또한 지금까지의 원형구조에서 사각으로 디자인해서 입체감을 살려 보았다.

이제 잠시나마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다. 나은 가을호 제작을 위한 그야말로 생산성있는 휴식,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옥고를 주신 집필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여름을 보내도록 기원하자. <泰>

투고를 환영합니다

제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적담
- 시, 수필, 수기, 풍토 등 문예작품

□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5/여름호
제간/비 매 품
<통권제26호>

등록 / 마-827호 (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5년 7월 1일

인쇄 / 1985년 6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